

## 2016년도 인생나눔교실 운영 사업 지역주관처 선정 심의평

### 1. 개요

- 선정심의 대상은 공모 신청한 총 8개 단체 였음.
- 모든 사업 권역에 1개 이상이 신청하여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이상을 충족했기에 심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음.
- 심사진행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음.
- 1차 서류심사에서 대상으로 확정된 단체는 6개이며, 이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심사를 진행했음.
- 최종으로 각 권역별 1개 단체씩을 선정하여 총 5개 권역에 5개 단체(경기문화재단, 강원문화재단, 충북문화재단, 대구문화재단, 광주문화재단)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했음.

### 2. 심사위원의 전문성

- 각 분야 전문가 4인과 문화부 담당자 1인으로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전문적 관점에서 심사하였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견을 토론하며 교환하여 충분히 파악했음.
- 전문분야에 대하여 인터뷰하면서 충분히 질의하여 파악했고, 중요한 부분은 응답 결과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.

### 3. 심의기준 타당성

- 사업이해도 및 참여도(30%), 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(40%),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(30%)를 기준으로 하였음.
- 대상단체별 심의항목별 점수를 각 심사위원별로 부여하고, 각 단체별 합산에 의해 고득점 단체를 선정하였음.
- 심사기준이 적정했고, 심사점수의 부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전체적으로 심의는 타당하게 이뤄졌음.

### 4. 맺음말

-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경험이 잘 반영되었고, 신청단체의 담당 직원이 높은 문화행정력을 지녔으며, 단체들의 참여의지가 매우 강했음.
- 사업진행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, 워크숍이나 각종 모임을 추진해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평가함.

2016 인생나눔교실 심의위원 일동